

2021년도
주요업무계획

2021. 1월



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·관리사업추진단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 | 1 |
| II .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 | 6 |
| III .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| 7 |
| 1. 조사·연구를 통한 백제왕도 역사적가치 재조명 | 8 |
| 2. 보존·정비를 통한 백제왕도 정체성 회복 | 10 |
| 3. 적극적 활용·홍보를 통한 백제유산 가치 확산 ... | 11 |
| IV .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 | 13 |

I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

1. 주요 성과

(1) 백제왕도 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

□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

- 백제문화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하기 위하여 공주(6개소), 익산(8개소)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의 세부 전략 수립
- * 유적별 발굴 목적 및 범위 명확화(조사 필요지점 및 보존 지점 선별 등), 체계적 조사 전략 및 예산 계획(장단기 조사 유형 구분 및 조사기간과 비용 산정 등), 기타 연구 계획 수립 등

□ 백제왕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초 고증연구 추진

-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를 위한 진정성 확보 및 완성도 높은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 고증연구 수행(2건 18억원)
 - 공주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 심화연구(5억원), 익산 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(5차)(13억원)
-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기초자료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정리 기록화사업 수행(2건 5.5억원)
 - 공주 공산성 아카이브 구축(1.5억원), 공주 수촌리고분군 기록화 사업(4억원)

□ 백제왕도 핵심유적 기준점(보조점) 설치

- 부여지역 핵심유적의 일원화된 기준점(보조점) 측량 및 표석 설치(1억원)

□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 성격 규명 및 정비 기초자료 확보

- 지하물리탐사(GPR)를 통한 매장유구 확인(7억원)
 - 공주 송산리고분군, 부여 능산리고분군 등 발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구분포현황 조사 및 지하물리탐사 실시

- 핵심유적 발굴을 통한 백제문화 실체규명을 위한 연구자료 확보
 - 공주 공산성 내 다양한 저장시설 확인(2.8억원)
 - * 백제의 중심건물지가 다수 확인된 성안마을과 연접한 구릉 사면에서 저장시설 밀집 분포, 공산성의 공간활용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 확보
 - 익산 왕궁리유적의 대지조성방식 및 생산시설 확인(10억원)
 - * 왕궁리유적 서쪽 일대 시대별 대지조성 및 공간 활용방식과 토기가마 확인
 - 부여 부소산성에서 백제와 통일신라시대 성벽축조기법 확인(10억원)
 - * 백제와 통일신라시대 성벽 축조기법 및 연접방식 파악, (추정)서문지 가능성 여부 확인을 통해 부소산성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 - 부여 나성(서나성)과 관련된 체성부 흔적 확인 조사(3억원)
 - 부여 가림성 내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된 집수시설 확인(4억원)
 - * 성 내부시설 복원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
 - 부여 화지산 유적에서 사비백제 벽주건물지 확인(6억원)
 - * 고대건물지의 고증 기초 연구자료 확보
 - 부여 구드래일원 내 백제시대 경작지 흔적 등 확인(2억원)



(2)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 보존·관리사업 추진

□ 조사·연구 및 정비·활용을 위한 유적 내 사유지 매입

- 공주, 부여, 익산 토지매입 추진 현황 : 58필지, 215,928㎡, 320.74억원
 - (공주) 공산성 11필지, 5,691㎡, 131.55억원, (부여) 부소산성, 나성, 능산리 고분군, 군수리 사지, 화지산 유적, 구드래 일원 등 27필지, 58,191㎡, 135.02억원, (익산) 미륵사지, 쌍릉 등 20필지, 152,046㎡ 54.17억원

* 부여 관북리 유적의 대규모 토지매입을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(LH에서 '19~'21년 매입 후 5년 분할 상환 / 308필지, 115,705㎡ 대상)

□ 연차별 계획에 따른 유적 정비

- 사전·예방적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방재시설 설치 : 4건 15.46억원
 - 공주 공산성 성벽 거동 모니터링(0.22억), 공주 송산리고분군 내부환경 모니터링(0.5억), 부여 부소산성 방재시스템 구축(14억), 부여 가림성 정밀 안전진단(0.74억)
- 온전한 보존·관리로 백제유산 역사성 회복 : 6건 36.3억원
 - 공주 공산성 위험구간 보수(2억), 부여 나성 성곽정비(9.5억), 부여 정암리 와요지 보호각 설치(5억), 익산 미륵사지 금당지 기단 정비(10억) 및 가마터 보호각 보수(9억),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불단 정비(0.8억)
- 역사문화경관 정비 및 관람환경개선 사업 추진 : 7건 74.1억원
 - 공주 수촌리 고분군 수목정비(3억), 공주 고마나루 생육환경 개선(1억), 부여 정림사지 광장 정비(4억), 부여 구드래 일원 관리계획 수립(1억), 익산 왕궁리 유적 전시관 증축·리모델링 및 복측관리소 조성(53.6억/7억), 익산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(4.5억)

[3] 지속가능한 활용 체계 마련으로 백제문화유산 가치 증진

□ 「백제문화유산주간」 개최에 따른 백제 고유의 브랜드 구축

- 중앙정부(문화재청 및 문체부 국립박물관), 지자체(공주·부여·익산시), 민간기관(백제센터)과 협업하여 행사 추진(10.19.~25.)
 - *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최시기 조정 및 규모 축소,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체계 가동

□ 보존관리사업 방향성 정립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

- 국내 및 일본·중국 등 각 기관과 학계의 고고학 성과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·관리 정책 수립 관련 검토 및 세계유산적 가치 대국민 공유
 - * 학술대회 개요 : 8.26.~27. / 대전 유성호텔 / '한반도 도시외곽의 등장과 전개'

□ 백제유산 활용을 통해 대국민 향유기회 확대

- 백제유적 발굴조사 성과의 지역주민 등 현장공개(4회)
 - * 공주 공산성, 부여 가림성 및 부소산성, 쌍북리 유적 등 발굴성과 홍보 활성화
- 첨단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 마련 추진 : 5건 168억원
 - 공주 웅진백제역사관 리모델링('18~'20년/10억원), 공주 공산성 '역사관 ICT 체험관' 조성('19~'20년/10억원), 익산 왕궁리유적 전시관 증축('20~'21년/140억원)
 -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및 부여 관북리 유적 임시홍보교육관 건립(5억/3억)

(4) 비대면 활용프로그램 도입으로 새로운 백제유산 향유체계 마련

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로운 활용프로그램 도입

-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등 비대면 활용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2020년 「국제학술대회」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대책 강구 및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참여 유도
 - 제3회 「백제문화유산주간」 내 녹턴 프로그램의 유튜브 생중계 실시 및 개인 유튜버 참여를 통한 행사영상 유튜브 공개 등으로 대국민 홍보
- 스마트 관람지원을 위한 「공유하고 감상하는 백제 '공감백제」 발간
 -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현장 길잡이 책자를 발간·배포 하였으며, 비대면으로 백제유적을 감상할 수 있도록 e-book으로도 게재
 - * 지자체, 국·공립·대학 도서관 및 지역 초등학교 등에 배포(1,000부), 책자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및 e-book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사이트 게재

□ 비대면 디지털 혁신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 기록화 추진

- 문화유산 원천 정보의 디지털 변환으로 축적한 '문화유산 데이터 댐' 구축을 위한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추진(2건, 5.5억원)
 - 공주 공산성 아카이브 구축(1.5억원), 수촌리고분군 기록화(4억원)

2. 평가 및 반성

[1]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 미흡

- 백제왕도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매장문화재 위주이며 문헌 등 기록에 한계가 있어,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백제왕도 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고증을 위한 노력 필요
-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필요
 - 보존관리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매입 및 조사연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사업 시행에 대한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집행 등 매년 계획된 성과 도출 필요
-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, 유적정비 등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백제유적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심유도 필요

[2] 백제유적에 대한 국민이 상시 향유할 수 있는 활용 정책 필요

- 백제유산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참여 행사는 유관기관 협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,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질적 향상 필요
- 한시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유산이 아닌 상시적으로 백제 유산에 대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활용 콘텐츠 마련 필요
-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용 콘텐츠 및 홍보전략 마련 필요

II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

1. 정책추진 여건

- 대통령 지역공약으로, 백제유적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 증대
 - 문재인정부 5년차 및 보존관리사업 추진 5년차를 맞아 대통령 충남 지역공약으로서,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통한 백제유적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역민 기대 및 요구사항 증대
- 백제왕도 보존·관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외 지적
 - 보존관리 사업 기본·시행계획에 따라 연차 추진되어야 하나,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 외부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지속적 지적
-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 증대
 -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관람환경에 대한 기대감 상승 및 비대면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대

2. 대응 방향

- 백제유적 보존관리 및 홍보·활용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
 - 백제유적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,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
 - 백제유적 보존·정비 사업을 지역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
 -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백제유산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비대면 활용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향유체계 마련을 위한 변화 추진

Ⅲ

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전략 목표

**백제왕도 핵심유적 체계적 보존·관리를 통한
백제왕도 기본골격 회복**

성과 목표

◇ 조사·연구를 통한
백제왕도 역사적가치
재조명

◇ 보존·정비를 통한
백제왕도 정체성
회복

◇ 적극적 활용·홍보를
통한 백제유산 가치
확산

세부 과제

■ 백제왕도 유적 체계적
정비를 위한 전략적 기반
구축

■ 진정성 있는 보수·복원·
재현을 위한 고증연구
추진

■ 백제왕도 실체규명 및
기초 연구자료 확보를
위한 발굴조사 실시

■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
체계 강화

■ 백제왕도 핵심유적
체계적 보존·관리사업
추진

■ 백제유적 보존·관리사업의
성과 가시화를 위한
집행률 개선방안 마련

■ 백제왕도에서 즐기는
제4회 백제문화유산주간
개최

■ 백제유적 학술연구 성과
공유를 위한 학술대회
개최

■ 고품격 백제왕도 핵심
유적 전시 콘텐츠 마련
등 추진

■ 비대면 활용프로그램
개발 등 새로운 향유
체계 마련

□ 백제왕도 유적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전략적 기반 구축

-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학술조사 및 정비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운영(0.4억원)
 - 체계적 조사 및 정비와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학제·법제·정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의 장 마련, 그간의 지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관리 방향 설정, 전략 모색
 - * 분야별 전문가인력풀(50명 내외) 구성 및 반기별 개최(연 2회, 5·10월)
 - * 운영위원회(7인 구성)를 통해 포럼 평가 및 세부주제 논의
- 공주·익산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 기준점 설치(국비 1.4억원/총 2억원)
 - 공주·익산지역 핵심유적의 일원화된 기준점(보조점) 측량 및 표석 설치

□ 진정성 있는 보수·복원·재현을 위한 고증연구 추진

- 공주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 심화연구(국비 3.5억원/총 5억원)
 - 고증연구를 통해 공산성 왕궁 건물지 등의 유적 복원·정비를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고증연구 실시
- 부여 군수리사지 고증기초연구(국비 1.4억원/총 2억원)
 - 군수리사지 복원정비 및 고증연구 방향 및 타당성 검토, 로드맵 수립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고증연구 실시(1차 기초 고증연구/1월~10월)
- 익산 미륵사지 5차 복원고증 연구 지속 추진(국비 9.1억원/총 13억원)
 - 미륵사지 목탑, 금당, 강당 및 승방 고증 기본연구 수행
 - * 익산 미륵사지 유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복원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8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행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중
- 익산 왕궁리유적 복원고증 기초연구 착수(국비 3.5억원/총 5억원)
 - 왕궁리유적 복원고증연구 로드맵 작성, 발굴조사로 확보된 건물지 기초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 고증연구 실시(1차 기초 고증연구)

□ 백제왕도 실체규명 및 기초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 실시

- 지하 물리탐사 등 비파괴 조사를 통한 매장 유구 확인(국비 2.5억원/총 3.5억원)
 - 송산리 고분군, 정암리와요지, 구드래일원 등 발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적의 분포현황 조사 및 물리탐사 실시
-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따른 **발굴조사 실시**(국비 26.7억원/총 38.4억원)
 -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문화의 실체 규명 및 정비 기초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 실시
 - * 공주 공산성, 부여 부소산성, 나성, 능산리고분군, 가림성, 화지산유적, 구드래일원, 익산 쌍릉 및 익산토성 등 발굴

□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(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등)

- (모니터링 시스템)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분석(국비 0.5억원/총 0.7억원)
 -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부 환경 및 공산성 성벽 거동 모니터링(원격제어)을 통한 선제적 관리
 - * 공주 송산리 고분군 '21 내부 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'22, '23 정비 추진 예정
- (방재시설 설치) 공주 공산성 내 방재시스템 구축('21 설계 국비 0.7억원/총 1억원)
 - 목조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비, 불꽃감지기 설치 외 경관조명 개선, 키오스크형 안내판 관리 등 종합적인 전기·통신·소방 시스템 구축

□ 백제왕도 핵심유적 체계적 보존·관리사업 추진

- (토지매입) (부여)관북리 유적, 부소산성, 능산리 고분군, 나성, 화지산 유적, 가림성, (공주)공산성, 정지산 유적, (익산)미륵사지, 쌍릉 내 토지매입(국비 233억원/총332억원)
 - 토지비축사업 대상지(부여 관북리 유적) 내 주민 이주단지 조성 지원으로 원활한 대규모 토지 매입(수용) 추진(국비 20.3억원/총 29억원)
 - * 내토지비축사업 완료('21) 후 5년간 분할 상환 지원('22~'26 / 국비 437억원 총 624억원)
- (기본계획 수립) 정비·활용을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(국비 1.4억원/총 2억원)
 - 부여 부소산성 및 공주 고마나루 조경정비계획 수립 등 2건
- (보수정비) 성곽 및 발굴지 정비 등 6건(국비 22억원/총 31.5억원)
 - 공주 공산성 연지 및 임류각 보수, 부여 부소산성 삼층사 연지 보수, 부여 가림성 성곽 정비,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지 정비, 익산 쌍릉(소왕릉) 정비
- (경관 및 관람환경개선) 수목정비 및 탐방로 정비 등 5건(국비 12억원/총 17억원)

□ 백제유적 보존·관리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

- (집행률 제고)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
 - 추진단과 지자체 간 사업관리카드 작성·공유·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상황 실시간 소통 및 애로사항 해결 추진
 -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설계 후 차년도 공사로 분리 추진
- (주기적 현장점검) 집행·부정수급 점검, 지침 등 준수사항 등 현장점검
 - 분기별 1회 현장 점검 및 집행이 부진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매달 점검

□ 백제왕도에서 즐기는 '제4회 백제문화유산주간' 개최(7.8.~7.14.)

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단체 등 10여개 기관 협업을 통해 백제문화유산 현장에서 체험, 전시, 교육, 공개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(0.6억원)
- 행사 계획 수립(4월), 홍보(5~7월), 행사 개최(7월), 평가 및 환류(10월) 등
 - * (중앙정부) 문화재청 추진단 및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, 문체부 국립 공주부여·익산박물관 (지방정부) 공주시, 부여군, 익산시, (민간단체) (재)백제세계유산센터, 정림사지박물관
- 백제문화유산주간의 대표프로그램인 '녹턴' 참여기관을 민간단체로 확대 운영
-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한 사진전시회(0.35억원) 등 야외 전시프로그램 운영

□ 백제유적 학술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(6월 개최)

- 최근 고증연구 등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추진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올바른 보존·관리 정책방안 제시(0.5억원)
- * '익산 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' 등 11개 고증연구 성과를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주제 선정

□ 고품격 백제왕도 핵심유적 전시 콘텐츠 마련 등 추진

- (첨단시설 활용 전시) ICT 기술 활용 체험 전시관 건립('19~'21년 국비 39억원/총 140억원)
 - * 익산 백제왕궁 ICT 역사관 조성 (전시공간, 수장공간, 가상체험관 등)
- (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/공주)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속추진(국비 28억원/총 4억원)
- (발굴 유물 공개·전시) 상주 장기 발굴조사 현장 출토 유물 임시보관과 학계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공개·전시를 통한 홍보
 - * 공주 송산리 고분군, 부여 관북리유적, 익산 쌍릉 등 발굴조사 현장 5개소
- (발굴성과 현장 공개) 백제유적 발굴조사 성과의 대국민 현장공개
 - * ('20년) 4회 → ('21년) 8회로 확대 추진 / 능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등 공개

□ 비대면 활용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향유체계 마련

- '제4회 백제문화유산주간' 개최 시 비대면 활용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* 참여기관 협업을 통해 비대면 활용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고화질·고품격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안전한 문화유산 향유방안 강구
- 2021년 학술대회의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한 대국민 참여 유도
- 발굴조사 성과의 비대면 현장공개를 통한 대국민 홍보체계 마련
 - * 발굴조사 과정 및 성과의 고화질 영상촬영과 유튜브 중계 등 비대면 제공을 통한 새로운 문화유산 향유체계 마련
- 비대면 디지털 혁신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 기록화 지속 추진(국비 0.7억원/1억원)
 - * 부여 나성 기록화 사업 추진을 통한 '문화유산 데이터 댐' 구축 추진

IV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

-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등을 통해 백제왕도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체계적 보존·정비기반 마련
 - 매장문화재 위주의 백제유적에 대해 발굴조사와 고증연구 등을 통해 백제 후기 응진기 및 사비기 왕도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속적 연구로 향후 체계적이며 명확한 보존·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

- 세계유산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보존정비의 본격 추진으로 백제왕도 정체성 회복 등 가시적 성과 도출
 -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
 - 유적 관리 및 활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유지의 전략적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, 역사문화경관 정비 및 발굴지 정비 등 보수정비사업 추진
 -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사업집행률 제고

- 새로운 비대면 활용 콘텐츠 등 수요자 중심의 상시 백제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제고
 - 백제문화유산주간 인지도 상승과 백제왕도의 품격 격상으로 지역대표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의 성공적 안착에 따른 백제문화유산 국민인식 제고
 - 백제유적으로 국민 치유 포스트코로나 콘텐츠 육성을 위한 탐방로 정비 및 이야기길 조성, 유튜브 중계 등 비대면 활용 프로그램 개발·제공
 -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 전시 콘텐츠를 제공을 통해 학습의 장으로서 백제유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향유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
 - 발굴성과 현장 공개 및 유물 전시를 통해 백제유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국민 관심 유도